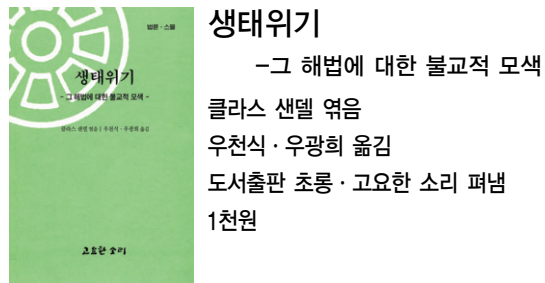


생태위기 원천은 '탐욕' ... '고요한 소리' 고요한 파문



생태위기
-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클라스 샌델 엮음
우천식 · 우광희 옮김
도서출판 초롱 · 고요한 소리 펴냄
1천원

'생태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책의 표지를 보면 생태를 걱정하는 책이고, 책 속으로 들어가면 책은 인류를 걱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교환경학자 5인의 저자들로 엮어진 책은 환경오염,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지구 생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회복의 가능성과 해답을 불교에서 모색하고 있다.

책은 위기의 원천을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는 생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사회의 당연한 귀결로, 경제가 정치까지 제치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소비가 미덕이며, 성장을 위한 수요의 창출은 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이 됐다. 돈 버는 일, 즉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소비를 권장하는 생활구조가 자연스럽게 탐욕을 키웠다는 것이다. 인류는 탐욕을 키운 가치관부터 검토해야하며 그 가치관의 중심인 탐욕에 대한 고찰은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미 중생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독소인 삼독(三毒·탐진치)을 가르쳐 왔다. 그 삼독 중의 하나가 '탐욕'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생태의 위기는 탐욕에서 왔고 부처님은 탐욕을 중생에게 가장 이

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탐욕을 내려놓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간단치 않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부자가 되는 것이 시민적 공의가 되고 경제성장이 국사가 된 구조에서 욕망을 줄여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탐·진·치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은 다중의 지지와 실천력을 얻기는 고사하고, 시대적역행적 발상으로 호도되기 쉬운 현실이다. 책의 필자들은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물량주의, 기술일변도의 사고방식 등은 바로 이러한 탐욕의 외표라고 말한다. '탐욕'을 해결하는 일은 생태위기를 벗어나는 근원적인 해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책은 불교적 시각으로 문제를 조망한다.

책은 인간과 자연간에 지금보다 좀 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영감의 원천으로 불교철학의 몇몇 측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철학은 어떤 신(神)도 전제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개인적 통찰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적 사고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 도움이 될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불교라는 종교도 철학, 도덕적 기준, 종교의식 등을 포용하고 있어 매우 복합적이며, 그 모든 측면들 또한 다른 문화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아 변형되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는 결코 단일한 개념이 아닐뿐더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교는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가 발간하는 책자와 논문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상좌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불교의 자연관을 빼알리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리 드 실바)

제2장은 최근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적 인식에 입각한 '대안' 개발연구와 연결해서 불교식 자연접근 방식을 조망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장은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영감의 원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스 샌델)

제3장은 불교적 환경윤리를 모색하고 있다. (빠르 마시리 드 실바)

제4장은 이상의 글들에 비해 보다 행동지향적인 글로 생태개발의 가능성을 불교의 입장에서 모색한 예를 소개한다. (시그문트 크발뢰이)

제5장은 '자연에 대한 불교적 인식 프로젝트'의 발기인이자 각국 조절자이며 미국의 환경 보호론자인 낸시 내쉬의 프로젝트 소개 글이다. (낸시 내쉬)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달라이 라마의 환경선언문을 싣고 있다. 이 선언문은 1986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그리고 그 해의 주제인 평화와 환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발표된 것이다.

책은 '고요한 소리'의 법률 시리즈 스무 번째다. '고요한 소리'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감당하고자 발원한 모임으로, 먼저 스리랑카의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훌륭한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책은 근본불교·불교철학·심리학·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연간물(連刊物)이다. 고요한 소리는 그 동안 법률 시리즈를 비롯해 '보리수잎 시리즈' 마흔여덟 권과 '금구의 말씀 시리즈' 한 권을 출간했다. 책의 출판비용은 뜻

을 같이 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판매비용은 전액 빼알리경전의 역경과 그 준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책이 생태위기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법률 시리즈-
1. 부처님 그분 - 생애와 가르침
 2. 구도의 마음, 자유 - 칼라의 경
 3. 다르파팔라 - 불교중흥의 기수
 4. 존재의 세 가지 속성- 삼법인(무상·고·무아)
 5.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6. 옛 이야기 - 빠알리 주석서에서 모음
 7.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8. 자비관
 9.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 방법
 10. 보시
 11.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12. 염수경 - 상응부 논집편
 13.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14. 사리뿔다 이야기
 15. 불교의 초서 - 사성제
 16. 칠각지
 17. 불교 - 과학시대의 종교
 18. 팔정
 19. 마라의 편지
 20. 생태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 ※고요한 소리 듣는 방법 / 국민은행 006-01-0689-346 (사)고요한 소리 (02)739-6328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고

노자와 다석-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류영모 번역 | 박영호 풀이 | 교양인 펴냄 | 2만5천원



톨스토이와 슈바이처는 <노자(도덕경)>를 읽고 예수와 일치된 노자의 사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슈바이처는 노자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톨스토이는 <노자>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시도했다. 81장으로 이루어진 <노자>는 오늘날 수많은 판본과 번역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다석 류영모의 번역은 <노자>를 우리말로 풀어 쓴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다석은 노장(老莊) 연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20세기 초반에 이미 깊이 있는 강해로 이름을 떨쳤다. 책은 유교 불교 노장 사상과 기독교를 하나로 꿰뚫어 독창적인 사상 체계를 세운 다석의 <노자> 번역을 바탕으로 삼아 그의 제자 박영호가 풀이를 덧붙인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노자>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으며, 동서고금의 수많은 대가들이 <노자>에서 세상의 이치를 얻어 철학적 사유를 확장했다.

<노자>의 사상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위는 '도는 언

<노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 톨스토이, "인류철학의 원천" 극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9 ~ 6/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3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6	삶이 깊은 것은 사리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7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9	가려먹은 아홉경 (재가자 편)	허정	지혜의나무
10	걷기 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불서출판 운우사 제공

www.unjusa.com
운우사 (02)3672-7181

대주 선사의 경쾌한 선기를 느껴라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대주해해 지음 | 한암대원 강설 | 불광출판사 펴냄
상권 / 3만2천원 하권 / 1만8천원

간화선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와 그 뿌리인 돈오의 정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주해해 선사의 어록을 정리하여 엮은 <대주선사어록 강설>이다. 사상적으로 남종선인 하백선사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돈오선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해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리니 마조 스님이 묻는다.
"무슨 일로 왔느냐?"
"저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 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말이냐?"
대주 스님이 입을 떼지 못하자 다시 마조 스님이 말했다.

"제 집의 보장은 돌아보지 않고 내돌아다니면서 무일 허러하느냐?"

<대주선사어록>은 우리 시대 선문(禪門)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암대원 선사의 재해석이다. 대부분의 선사 어록이 입적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후인들에 의해 모아지고 편집된 데 비해 <대주선사어록>은 대주 선사 자신이 직접 집필한 깨달음에 오류나 기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큰 장점이 있다. 더구나 책의 서두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이며, 책은 그 두 분이 살아 있을 때 저술되었고, 마조 스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이다.

<대주선사어록>은 그리 길지 않다. 더구나 한 편 한 편이 독립되어 있어 어느 쪽을 펼쳐서 보더라도 문맥이 엉키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간결한 문장 속에 깨달음에 이르는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상권에는 '돈오입도요문론' 47 단락을 실었으며, 하권에서는 '제방문인참문' 40개 단락이 실려 있는데, 각처에서 찾아오는 경·율·논·중장들이 스스로 승복하도록 만든 대주 선사의 경쾌한 선기를 느낄 수 있다. 평정사의 도, 성인의 행, 참부처님의 아들, 오욕의 독, 진여의 정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박재완 기자

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노자>의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문학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노자를 꼽았으며, 헤겔은 노자의 사상을 그리스 철학을 능가하는 인류 철학의 원천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서양의 노자로 불리는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노자>를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노자의 '도(道)'를 '모든 것에 길을 내주는 길'이라 풀이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하나의 사상을 담고 있는 <노자>는 동양의 경전 중에서 가장 심오하여 쉬이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유명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해석자에 따라, 또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석은 대체로 직역으로 옮겼는데, 이 방식에는 원문을 읽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 독자가 낱말이나 글자 하나가 지니고 있는 깊고 넓은 사유의 세계를 맘껏 거닐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석의 <노자>는 한문이 지니는 해석의 다양성을 헤아린 탁월한 풀이이며, 우리말로 철학학자의 지평을 넓힌 전범(典範)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The Miracle of Mindfulness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원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니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볼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 www.facebook.com/bulkwang